

“한국은 유일한 간화선의 나라”

버스웰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취임 첫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열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간화선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나 전문으로 봐도 그렇고 실수행을 하는 나라로는 유일하기 때문이죠.”

로버트 버스웰(57·사진) 불교학술원장은 7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학술회에서 간화선의 저명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논문과, 한국의 간화선을 대표하는 선사들의 법문을 들으며 간화선을 체계화하는 일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는 버스웰 교수가 2009년 6월 불교학술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사업으로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버스웰 원장은 “미국에서는 중국·일본 불교 학자가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연구가 활발하다. 하지만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는 5명에 불과하다”며 “외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간화선을 한국수행자와 외국학자들이 한 데 모여 토론을 하면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대로 외국에는 간화선을 연구하는 학자는 많지만 한국에서 간화선 수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이들이 많다.

버스웰 원장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일본과 중국 불교를 전공하기 때문에 한국불교의 간화선 전통을 알리려면 어렵다. 간화



선 수행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를 연구하는 외국학자들이 실제 간화선 수행현장을 보면 좋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노르웨이 등 해외의 간화선 학자 9명과 국내 학자 6명이 모여 발표한다. 학자들의 발표 시작 전에는 선사들의 기초법제 법문을, 발표 종료 후에는 진제·혜국·고우·수불 스님이 참석해 회향 법문을 한다. 연구서적외로만 간화선을 접해 온 국외의 학자들에게 전통적 법문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학술회가 끝난 후에는 8월 14~16일 2박3일 동안 충주 석종사, 문경 불암사, 순천 송광사,

마곡사, 수덕사, 개심사 등 선원을 탐방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버스웰 원장은 “간화선은 화두를 풀으면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인도, 티베트, 남방의 수행과는 다르다. 보다 근원적 수행 방법이다”며 한국의 간화선을 평가했다.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 방법인 간화선은 옛 선사들로부터 근현대의 선사들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전승돼 왔다. 이런 전통이 있기에 오늘날도 매년 100여 군데의 선원에서 2200여 명의 출가 수행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또 재가수행자들을 위한 선원들도 생겨나 불교를 믿는 이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이도 수

행할 수 있게 돼 간화선 수행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버스웰 원장은 “간화선 수행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한국 간화선을 국제화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며 한국 간화선을 국제화하겠다는 서원을 밝혔다.

버스웰 원장은 “외국에 간화선을 알리려면 나부터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간화선을 공부했다. 실제로 그는 태국과 미얀마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다가 그곳에서 한국 스님을 만나 한국으로 왔다. 이후 1974년 송광사 구산 스님 문하에서 출가해 ‘혜명’이란 법명을 받고 5년간 수행했다.

버스웰 원장은 1985년 UCLA에서 ‘금강삼매경론’의 한국적 기원’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론>을 비롯해 지눌 스님 전집을 번역하는 등 한국불교 소개에 앞장서 왔다. 이런 공로로 1994년에는 불이상을, 2008년에는 만해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5년 UCLA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임용된 그는 1993년 UCLA에 한국학 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한국학 센터로 한국의 종교와 문화 등을 가장 한국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나 기자

초의의 다도관은 ‘전다삼매’

<煎茶三昧>

박동춘 소장 박사 논문서 초의 스님 차문화관에 새 시각 제시

‘차문화의 암흑기’였던 조선시대에 차문화의 중심지인 ‘한국의 다성(茶聖)’ 초의(1786~1866) 스님의 사상과 차문화관을 알 수 있는 논문이 발표됐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최근 동국대학원 선학과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인 ‘초의선사의 다문화관 연구’에서 초의 스님의 저술인 <동다송(東茶頌)> <일지암 시고(一枝庵詩稿)>와 스님의 제자인 서암 스님이 초의 스님의 유품목록을 기록한 <일지암서책목록(一枝庵書冊目錄)> 등의 자료를 통해 초의 스님의 차문화관 및 초의차완성에 대해 고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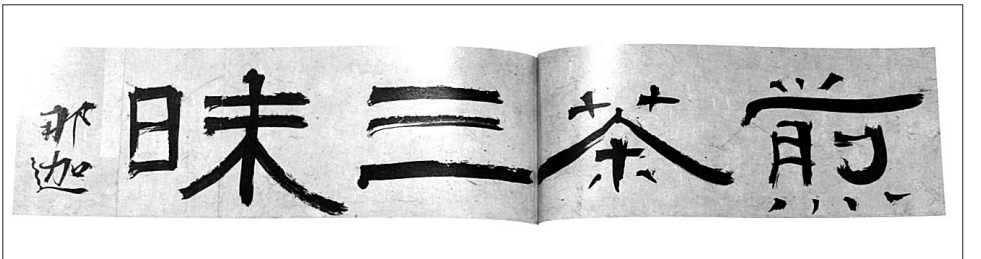
신라 말 선종(禪宗)과 함께 유입된

등 당시 북학과 경화사족들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조선의 문화자존의식을 반성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 일환으로 초의자를 통해 우리차를 알게 됐고 이들은 차의 맑고 담백한 가치가 사람의 마음과 몸을 순화하는 효

<일지암서책목록>에서는 초의 스님이 교유했던 사람들이 초의 스님에게 보낸 시문, 첩책과 그가 읽었던 도서의 종류도 담겨져 있다. 특히 이 유품 목록에는 <다경(茶經)>과 <다보서기(茶譜序紀)>가 수록돼 있어 초의 스님이 차 이론을 연구하고



초의 차산도(茶山圖). 초의 스님은 다산 정약용의 명으로 차산도를 그려 정약용에게 보냈다(오른쪽). 추사 김정희의 전다삼매 지본묵서(紙本墨書)(아래 오른쪽)와 박동춘 소장.



차(茶)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왕실과 사찰의 주도 하에 중국 송나라와 비견될 만한 차 문화를 형성하게 됐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배불(佛敍)정착으로 인한 왕실의 차에 대한 무관심은 차 문화 쇠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단지 차 문화는 음다(飲茶)의 이로움을 인식했던 문인들이나 수행승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박 소장은 “초의 스님은 조선 후기 한국 차 문화를 중흥해 쇠퇴 위기에 있던 선자를 복원해 초의차(草衣茶)로 불릴 만큼 뛰어난 품격의 차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며 “그가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를 통해 북학과 경화사족들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차의 애호 기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830년대 초의 스님이 봉래품(奉來品)으로 공여한 초의차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차에 대한 애호와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박 소장은 “김정희, 신위, 정하유

능을 공유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정희(1786~1856)와 신위(1769~1845)는 초의 스님이 만든 차에 대한 보완점을 일일이 지적함으로써 지속적인 차품의 향상을 도모했으며 김정희는 초의자를 가장 아끼고 애호했던 사람으로 초의 스님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다.

박동춘 소장은 초의의 유품목록인 <일지암서책목록>을 발굴해 그의 학문적 토대가 됐던 도서의 종류, 그가 일상에서 사용했던 다구의 재질과 종류, 찻잔의 유형 등을 발견했으며 이에 따른 초의 스님의 탕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 소장은 “1970년대 차 문화 운동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탕수를 식혀 차를 우리는 탕법이 유행했는데 이는 초의 스님의 탕법과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 유행하는 탕법인 낮은 온도에서 차를 우려내는 방식은 전통을 이은 초의 스님의 탕법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올바른 탕법으로 돌아갈 기준을 마련해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착했던 도서와 초의차의 이론과 실체가 담겨져 있었다.

또한 박 소장은 초의 스님의 다도관을 일반적으로 다산일매(茶禪一味), 다산일여(茶禪一如)로 말해졌으나, 이 용어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사용됐을 뿐 아니라 선과 차의 의미를 하나로 보는 것이 불합리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차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할 때의 삼매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공극적인 선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일여가 될 수 없다. 즉, 전다삼매(煎茶三昧)라는 것이 박 소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 소장은 “초의 스님의 다도관은 김정희가 ‘초의차’의 경지를 표현한 ‘다삼매(茶三昧)’, ‘명선(茗禪)’, ‘전다삼매 등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전다삼매는 김정희뿐만 아니라 당시 사대부들의 다도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나 기자

복원 순장녀 송현이 보러 오세요

국립김해博 기획특별전 ‘비사벌’ 9월 30일까지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윤민)와 국립김해박물관(관장 송의정), 창원군(군수 김충식), 고성군(군수 박용환)은 7월 27일~9월 30일 기획특별전 ‘비사벌’을 공동 개최한다.

‘비사벌’은 <삼국사기>에 전하는 창원지역의 옛 이름으로, 이번 전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한 창녕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81호)을 중

심으로 창녕지역의 고분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창녕 송현동 고분군은 교동고분군과 함께 창녕지역의 대표적인 수장급 무덤군으로 배 모양의 녹나무관을 비롯해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등 신라의 대형 고분에서 출토되는 장신구와 마구, 무구류, 그리고 순장인골 등이 확인돼 발굴 당시부터 국내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복원된 순장인

골 ‘송현이’를 주인공으로 ‘비사벌’ ‘비사벌의 지배자’ ‘비사벌 사람들’이라는 3개의 큰 주제 아래 송현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5~6세기 비사벌의 역사와 문화를 살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품으로는 송현동 6·7·15호분 출토품을 비롯해 계성과 교동고분군 출토품, 서라벌 세력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황남대총, 금관총 출토품 등 200여 점이 전시된다. 그 가운

이어나 기자

빙의의 시대 증상을 바로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값 9,500원

빙의의 시대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근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빙의의 시대 2

<빙의의 시대>를 출간한 뒤 수많은 독자와 빙의 환자, 또 그들의 보호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1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귀신에 접근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조기퇴치의 방법,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저자 / 일광(逸廣) 선생

오로지 천지인(天地人)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산하를 떠돌며 수행하던 일광 선생이 문득 회통의 밝은 빛을 보았으니, 오대산의 한 토굴에서였다. 그 뒤로 사후세계가 확연히 드러나며 영령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역할이 그들 귀신들을 안온한 세계로 천도해 다시는 인간세계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빙의의 시대>는 그러한 마음에서 저술한 일광 선생의 첫걸음이다.

병은 알릴수록 양약이 나타난다!

- 정신질환자
-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무당 생활이 싫으신 분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기우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환청이나 환각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이 몸에 있다고 고민하시는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좌골신경통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시는 분
- 만성 신경화장 환자
- 말기 간암 환자

※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책을 읽은 뒤에 상담해주시고.

상담전화 02) 743-7679, 010-5040-7679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